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결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운 흩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흩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개역, 마가복음 4:1-20]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주워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조금 났지만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조금 자랐지만 결실치 못하였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결실을 많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종류의 밭이 있고, 씨가 떨어졌고,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었으니 우리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씨가 중요한 건지, 밭이 중요한 건지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다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난 뒤에 이 점을 살펴보고 하겠습니까.

제자들과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얼 말하기 위해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신 말씀을 봐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은 거의가 '천국은 이와 같으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대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 다녔지요? 예수님이 무엇이 되길 바랬죠? 왕이 되면 하다못해 장관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누누이 말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이까라고 또 물어요. 그런 제자들이었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겁니다.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 왔었죠.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거듭나야 한다고 했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었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제가 엄마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께 다시 가서 묻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비밀을 잘 모르면 예수님께 다시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참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훌륭한 학자 중에 성경을 잘 아는 박사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학문 연구하듯이 열심히 봐서 내용은 잘 알아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외운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읽지 않으면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면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한 내용이 뭐죠?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 알아채지요? 떡을 떼서 축사하시며... 기도할 때에 알아봅니다. 아! 이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눈떠 보니까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라 길에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뜻하지 않더냐? 거기까지는 갔던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이 뜨여졌더라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차선책으로 성경을 잘 풀이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배우는 것이 좋은 점이 많지요. 예를 들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약소 민족의 설움을 안고 쫓겨갔지요. 바울을 만난 것이 일생 일대의 큰 복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 복이죠.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장 큰 복입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느냐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듣고 참 기분이 좋았던 말은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오래 있겠냐? 계실 동안에 본전 빼자”라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 한숨 잔다고 누워 있다가 성경공부 시간 됐다고 아이들 둘 데리고 헬레벌떡 뛰어오는 그 모습이 기분 좋은 정도를 넘어서 감격스럽더라고요. 본전 빼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뽑을 수 있는대로 뽑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었는데 본전도 못 빼고 오늘 서울로 이사갔습니다. 저도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런 자세가 소중한 자세이며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비유를 쓰면 알아듣기가 참 쉬워요. 어려운 것이나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면 알아듣기 쉽습니다. 어떤 비유인지 알아 맞추어 보세요. 가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 주시고, 위협할 때는 돌아보아 주시고, 쉬어야 할 때는 나를 쉬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

그렇게 짧은 말 속에 긴 내용이 다 들었잖아요. 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안된다. 내게서 힘을 얻고 내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야 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 전하려는 내용도 아주 선명하고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비유

의 일차적인 목적은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은어, 군인들이 쓰는 암호 따위가 그렇지요. 옛날에 아이들이 “어제 어디 갔더니 깔치가 끈대하고 뭐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예사롭게 해요. 선생님이 그 말 뜻을 모르면 옆에 선생님을 두고 선생님 흉을 보는 겁니다. 깔치는 여선생님, 끈대는 남선생님이지요. 은어라는 것이 아는 사람들끼리는 뜻이 아주 명확하게 통하고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꼬투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두 가지 용도를 잘 활용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더 전해주고 싶지만 그 외 사람에게는 말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실까요?

예.

감정이 있다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감정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분 좋을 때는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줄 것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노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고 싶을 때 마음껏 주고 싶은 거죠. 대신에 이런 길을 터 놓았는데도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백성에게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했다는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을 아무렇게나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그냥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감격할 이런 방법으로 주셨고 모르는 사람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온갖 사랑을 다 쏟아도 거절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거지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나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받기는 받지만 조금 미안합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왜? 이런 사랑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놨거든요. 열어놓고 특별히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고 저기 앉아서 하나님 그거 편애 아닙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싫으면 들어오면 될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데 자격 있습니까? 심사합니까?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편애하십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더 사랑하는 백성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이 사랑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도록 물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감정을 지닌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정을 지닌 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기분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하면 복을 쏟아 부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보면 그런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관대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은 봐라 다윗의 저런 태도를 봐라 내가 어떻게 안 주겠느냐 그러시면서 복을 가져다 부으셨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분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물었던 질문 있지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씨 뿌리는 자, 씨, 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밭.

밭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나요? 좋은 거름을 많이 먹으면 좋은 밭이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거름을 많이 먹나요? 좋은 주인을 만나야...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해 놓고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는지 자기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밭이 나가서 거름을 해 올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뒤집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밭이 중요하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 마음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조금 어색합니다.

밭을 보고 좋은 밭이 되라는 것은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결실을 조금도 못했을 때 너 길하지 말고 밭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어색합니다. 밭이 아니면 그 다음 씨가 중요하지요. 싹이 안 나는 씨를 밭에 아무리 뿌려도 안됩니다. 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씨를 구해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가 참 중요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책이 나온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책인데 읽어보면 감동을 참 많이 받아요. 아마 그 책 읽으면서 울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걸요. 눈물 나는 대목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 회장님에게 요약해서 30분 간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울고불고 훌쩍거리리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고생담이 아닌데 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느냐고 물었더니 다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빈민촌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을 도와 가면서, 온갖 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현금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지요. 자꾸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안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다가 크게 반성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돕느라 헌신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몸으로 때우고 뛰는 것보다는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책에서 감동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웃들에게 아무리 선을 베풀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는 싹이 안 나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싹이 나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열심히 들어도 싹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선한 행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그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은 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그 분들이 결국은 거둬나고 열매 맺게 되는데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앗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뿌려야 한다고요? 좋은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되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뭐부터 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나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셨을 때 언니는 부엌에서 바쁘고,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열심히 들었던 말이에요. 누가 잘 했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잘 했다고 했던 말이에요. 말씀 듣는 이를 더 칭찬했다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싹이 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앗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싹 나는 씨앗을 누가 관리를 해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하지요. 결국은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가 뭐 합니까? 좋은 씨앗을 구해 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는 뭐라고 했지요?

말씀.

말씀을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

예수님이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단 말이지요.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자갈밭에 떨어진 것, 떨기나무에 떨어진 것,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하는 씨앗도 있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죽일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일부는 싹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테고, 일부는 싹이 났다가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일부는 났지만 결실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왜 길가에 떨어져요.

잘못 뿌려서.

잘 뿌리면 안 떨어져요?

바람불어 가지고.

거의 모든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나 자갈밭에 떨어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좋은 밭에 떨어져 풍성한 결실을 맺는 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과를 보세요. 이 씨앗이 큰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지요. 비록 열매 맺지 못하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1차적으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씨 뿌리는 자가 나오죠. 2차적인 의미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지금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입니다. 무엇을 뿌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뿌립니다. 뿌리는 족족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무리 뿌려도 잘 안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제대로 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큰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이 풍부한 때가 아닐까 싶어요. 텔레비전만 켜도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말씀이 말씀대로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이 많이 전파되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말씀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바닷물에 들어 있는 것은 잘 안 썩어요. 왜 그렇죠?

소금 때문

바다의 소금이 얼마나 들었으면 안 썩어요. 3%라고 합니다. 굉장히 싱거운 소금물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믿는 사람이 3%만 있으면 이 나라가 괜찮아야 정상인데 3%는커녕 적어도 두 자리는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우리 사회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간 사회인가 썩어가는 사회인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살아서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종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야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퍼져있는 밭이

좋은 밭인지, 자갈 밭인지, 가시떨기 나무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합니다.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깐요.

말씀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뿌린 말씀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것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뿌리는 이것이 큰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것으로,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한다면 효자제일교회의 앞날은 환하게 밝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한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11절에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